

# 새내기 公職者 위한 멘토·멘티 하나되기

## 동두천시 신규 공직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

동두천시는 8월3일 새내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7월23일자로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직자 11명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함께 있어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고, 멘토·멘티 하나되기 행사를 통해 슬기로운 공직자로 태어나기 위한 행사였다.

시는 새내기 공직자 11명중 동두천 관내 출신이 1명, 타 시군 출신자가 10명으로 앞으로 근무하게 될 동두천시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해 관공자 및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함께 있어 훌륭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선배 공직자와 멘토·멘티 하나 되기 행사 및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멘토·멘티 결연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 멘토링

(mentoring)을 실시한다. 동두천시의 멘토링 제도는 2005년8월 처음으로 39팀이 '멘토·멘티 하나 되기' 행사를 가진 후 총 66개팀 132명이 멘토링 활동을 해왔으며,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혁신자료로 게재되기도 했다.

멘토링이란 스승인 멘토(mentor)와 제자인 멘티(mentee)의 합의하에 멘토의 지도로 멘티를 핵심인재로 양성하는 제도로, 이번 '멘토·멘티 하나되기'에서는 신규임용 공무원(11명)을 멘티로, 조직내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멘토로 하여, 업무전수·주요인사소개·공직생활 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멘토링 제도는 신규 직원의 빠른 조직 적응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멘토도 얻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과 함께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동두천시는 8월3일 새내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를 실시했다.

도 얻고,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는 점도 있으며, 본인 발전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청소년 영어 체험 캠프 수료식

## 동두천시 중학생 55명 대상 영어 실력 체험

동두천시는 7월28일 오전 11시에 동두천 중학교 시청각실에서 동두천시청, 시 의회 의장, 동두천중·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청소년 영어 체험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영어 캠프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동두천시 후원으로 5차원 전문 교육 연구원이 주관하여 동두천시 관내 중학생 55명을 대상으로 7월23일~27일까지 동두천 중학교에서 5차원 영어 학습법 및 체험 학습을 통하여 동두천시 청소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특히, 7월27일에는 영어 체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미2사단을 방문하여 미군 원어인 자원 봉사들과 함께 영내에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하여 그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체험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학생들에게 영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우리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동두천시는 7월28일 오전 11시에 동두천 중학교 시청각실에서 동두천시청, 시 의회 의장, 동두천중·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청소년 영어 체험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다.

# 2007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 시범농가등 100여명 참석, 개선방안 모색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쌀 수입 개방에 대응,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2007년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는 생산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농가, 품목별농업연구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이날 권이룡 소장은 인사말에서 WTO/DA농업협상에 의한 쌀 수입개방,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농업,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농업이 살아 갈 길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 보급, 경영 컨설팅 등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중간 평가회는 생육중기의 생육을 관찰·분석하고 고품질 쌀 수확수 및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친환경농업 등 식량작물 보급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급후 대책을 수립, 보완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쌀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웰빙화에 따른 수요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쌀 수요가 단순히 주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건강증진, 다이어트 등 기능성 쌀 상품화에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쌀 수입개방에 대응,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2007년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를 가졌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 동두천시 복지서비스·민원업무 내용 수록

동두천시 불현동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지, 고용, 보건을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주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 책자를 발행했다.

책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복지부서 및 복지상담 전화번호 ▶사회복지시설 안내 ▶민원처리 안내 등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인감, 호적, 증명서, 기초수급자 등 민원,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내책자(1,000부)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 등 단체 회원 및 복지대상자, 주민들



동두천시 불현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동 관계자는 "안내책자에는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 돼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도전 2007 청소년 봉사체험'

## 양주시 관내 중·고생 40명 대상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관내 중·고등학교생 40명을 대상으로 '도전 2007 청소년 봉사체험'을 운영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관내 중·고등학교생 40명을 대상으로 '도전 2007 청소년 봉사체험'을 운영했다.

도전 2007 청소년 봉사체험은 여름 방학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다.

봉사체험 운영은 첫째 날인 24일에는 시청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센터 전수경사무국장의 기초교육, 팀 협동작업 프로그램지도로, 25일에는 양주 지역사회 문화탐방시간으로 회암사지, 향교, 초록지기마을, 필룩스 등을 관람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26일에는 남면에 있는 양주 대진 요양원을 방문 시설가족과 함께 미술치료 및 노력봉사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시청대회의실에서 DISC유형검사,느낌나누기, 소감문작성 및 발표 등으로 4일간의 봉사체험을 마무리 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전수경 사무국장은 이번 청소년봉사체험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 체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향후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연천군, 1·21 무장공비 침투로 정비

연천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보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생동감 있도록 보이기 위해 7백만원을 투입해 1·21 무장공비침투로(김신조 침투로)의 밀랍인형 보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8월중으로 완료한다고 밝혔다.

1·21 무장공비 침투로는 1998년 12월에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694번지에 설치되어 인근의 경순왕릉

(사적 244호)과 더불어 연간 20,000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군 관계자는 침투로를 찾는 방문객이 1·21 무장공비 침투로라면 잘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짓지만, '김신조 침투로'라고 하면 "여기가 그곳"이라며 놀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식 명칭은 '1·21 무장공비 침투로'가 맞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討論과 對話를 통해 우리는 한 家族!'

## 연천교육청 전직원 교육장 주재 자유토론 개최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양기석)은 8월2일 교육청 전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교육장 주재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업무관련 노하우 공유 및 연천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토론회의 일환으로 교육장이 직접 주재했다.

이날 자유토론은 먼저 전 직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교육청내 직원간, 또는 상사와 부하직원간 갈등 및 의견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선정했고 양기석 교육장의 특강을 들은 후 전 직원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에서 의견차이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이 가능한가?' 등을 놓고 열린 토론을 실시했다.

'연천'팀 발표를 맡았던 김우림 주사는 "각 팀의 토론 결과 발표를 들으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며 직원 상호간,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때로는 상사에 대해 서운하고 답답한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교육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양기석 연천교육장은 특강을 통해 토론의 정의와 토론 방법 및 유의할 점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토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가 역어서(易地處之)의 노력이 꼭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박범식 관리과장은 총평을 통해 "직원들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면 직장 분위기가 혁신 될 것이며, 업무 효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혁신 토론회는 교육장 주재 토론 2회, 학무과장, 관리과장 주재 토론 2회로 연 4회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연천교육청은 8월2일 교육청 전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교육장 주재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 One-Stop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조기정착위해

동두천시는 2007년1월1일 이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시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등의 행정조직 개편과 시청과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하여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10일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민간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공무원 등 민·관이 참여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이나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시 홈페이지) 설문조사(산 활동), 직접 및 우편조사 방법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달라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호응도, 민·관협력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만족도 조사, 서비스



동두천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조기정착을 위해 One - Stop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통합정보 제공 안내, 서비스 전달체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및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제공하는데 활용 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양주시 일본국립천문대 우주업체 영상관 도입

## 30일 일본국립천문대장 초청 시연회 다음달 개관

양주시가 국내최초로 일본국립천문대의 우주업체 영상관을 도입 하여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하고 7월30일 일본국립천문대장을 초청 시연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간다.

양주시가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설치한 우주업체영상관은 일본국립천문대(NAOJ)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우주구조를 첨단 컴퓨터를 이용 시뮬레이션데이터로 구축하고 최신 천체 관측 결과를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하여 태양계에서 우주 끝까지의

실제 우주공간과 천체 현상을 4차원 공간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데이터들은, 천문학의 최신 이론과 연구결과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데이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 최상급에 속하는 일본국립천문대의 하와이 이미지와 천문대의 최첨단 망원경으로부터 얻은 실측 자료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9만3천7백개의 항성과 8천7개의 행성 48만천6백7십7개의 은하 등 50여 만 건에 가까운 천체를 표현하여 현대 천문학에서 발견한 거의 모든 천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상관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출발해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하고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밖에도 은하탄생, 우주의 구조, 화학적특, 입체적우주구조, 태양계의 공전 및 궤도, 발자리, 파이오니아와 보이저 등 우주선의 비행궤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간을 입력하면 과거나 현재의 발자리와 태양계의 궤도 등을 사실적으로 정확히 관측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가 국내최초로 일본국립천문대의 우주업체 영상관을 도입 하여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하고 7월30일 일본국립천문대장을 초청 시연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간다.

양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평일 학생 단체관람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매주 토·일요일에 일반에 공개하며 관람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대상은 만10세 이상 양주시민으로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개별입장은 할 수 없다.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꿈나무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